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 하 나(명지대학교 박사과정) · 김 정 민(명지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합리적 신념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자살생각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550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 부모 의사소통유형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들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363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SPSS Win 12.0를 이용한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과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은 우울감, 좌절반응, 무망감,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 무기력, 성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은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청소년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은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나 아버지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 자살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서적·인지적 변인,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유형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자살생각을 다루기 위한 인지행동치료적 접근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좌절반응이나 무기력 등과 관련이 있는 부적응적 사고를 대안적 사고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부모-자녀 간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의사소통기술훈련을 병행하는 것은 커다란 이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살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자살 치료·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적 개입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기술훈련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